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한국사의이해 |
|  | **학번** | : | 202234-153799 |
|  | **성명** | : | 한승환 |
|  | **연락처** | : | 010-2862-020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목차

1. 1번 과제

1.1 1862년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과 의의

1.2 광무개혁의 내용과 한계

1.3 1910년대와 19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의 비교 및 서술 &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

1.4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과 나에게 끼친 영향

3. 나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과 그 이유

(출처: 한국사의 이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과서), 방송 강의, 웹 검색)

1. 1번 과제

1.1 1862년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과 의의

1862년은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여 백성들의 농민 봉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년도인 임술년의 이름을 딴 바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 시기이다.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세도정치 아래 앞서 언급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비합리적이고 무자비한 끊임없는 희생의 강요이다. 백성들의 이 희생은 부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방 중간 관리층들의 세곡 빼돌림에 의해 발생한 재정의 구멍 때문에 부과하게 된 추가적인 부세 때문에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또한 환곡정책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은 치솟아갔다. 이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경상도의 진주에서 가장 먼저 곪아 터져버린다.

진주목의 창고에는 관리들의 수취와 부패한 행정으로 인해 곡식이 단 한 톨도 남아 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진주목사는 백성들에게 토지 1결당 6냥 5전씩의 추가적인 도결을 받아내려고 하였고 경상우병사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곡세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물리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교활함에 농민들은 결국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임술농민봉기의 첫번째 봉기인 진주농민항쟁이다. 진주에서 일어난 봉기는 시장의 유통망을 통해서 그 소식이 인근 마을로 확산되어 갔고 이는 곧 전국적인 농민봉기의 전초가 되었다. 뒤이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및 전라도 등지까지 농민봉기의 불길이 치솟았다.

농민 봉기사태를 잠재우고자 조정에서는 안핵사, 선무사와 암행어사를 지방으로 대거 파견해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유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탐관오리와 조세와 관련한 부정부패에 관련된 관직의 인물들을 처벌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관리들의 처벌은 임시적이었으며 매관매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삼정이정청이 삼정의 문란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임술농민봉기는 백성들의 삶을 탐관오리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흐름의 방향은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1.2 광무개혁의 내용과 한계

구본신참의 정신으로 옛것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 정부에서 실행했던 근대화 개혁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광부개혁은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과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위험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건립한 고종 황제가 시행했다. 당시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서로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의 세력들의 이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아관파천이후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광무 개혁을 통해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빠르게 높이고 부국강병을 도모했다.

먼저 행정부문에 있어서 서울의 도시개조작업을 진행했다. 서양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아래에서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설치한 경복궁의 전등을 시작으로 곧 서울의 모든 대로에는 가로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화를 개통하여 통신부문에서의 기술적 개혁을 단행하였고, 전차운행, 배수로와 수도 정비, 도로 정비 작업을 통해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교육의 부문에서는 유학생의 해외 파견, 기술교육기관, 실업학교 및 중학교를 설립하여 국민들의 기술력과 교육수준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실업학교를 통하여 근대 과학기술의 수용과 상공업의 발전을 진흥시키고자 했다. 또한 의학교를 설립하여 국민들의 위생을 향상시키려 노력했다.

국방의 부문에서는 대한제국군을 탄생시켜 육로에서 외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양무호와 광제호를 해상에서 운용하면서 해군의 근대식 전함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대한제국의 자주성과 근대 주권국가의 모습을 향해 나아갔다. 부족한 인적 자원과 재정상황에도 고군분투하며 진행했던 개혁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도록 하면서 광무개혁은 사실상 끝을 맺었다.

1.3 1910년대와 19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의 비교 및 서술 &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

35년의 긴 세월동안 진행된 일제강점기는 통치 방식에 따라 통치기간을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대와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은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다.

우선 1910년에는 조선이 일본과 합병된 경술국치를 시작으로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일제의 무단통치가 자리잡았다. 일제는 본토의 지원을 최소화하여 자립적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사용하였다. 칼을 찬 교사, 조선인의 경제력을 억압하기 위한 회사령, 보다 철저한 수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억압정책을 실시했다.

1920년에는 3.1운동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조선총독부는 보다 회유적인 분위기를 통해 식민 통치를 안정시키고자 문화통치를 실시했다. 산미증식계획으로 생산량을 높였고, 헌병이 보통경찰로 바뀌었으며, 출판과 언론의 자유를 일부 부과하였다. 하지만 높아진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본국으로 수탈하였으며, 헌병의 세력은 여전하였고, 언론의 자유 또한 일본인의 검열을 거쳐야 출판 가능했다.

연도별로 서로 다른 통치방식을 채택했던 일본이었지만 그들 통치의 본질은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선포하였을 때 ‘일본 국민다운 품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던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조선인들을 차별하여 억압 및 탄압하고 잔인한 통치방식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철저히 지우고자 했다.

1.4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맺고 남은 점령지들의 처리방침을 두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모임을 한 회의에서 조선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했다. 이 논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 곧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핵심은 해방 직후 혼란과 불안정함을 미군과 소련정부가 5년간 신탁통치를 하면서 조선인들로 구성된 정치체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자립적인 정부구성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소련 양 국가는 조선 이외의 세계의 다른 진영에 쓸 힘을 비축하는 것을 첫 5년간의 신탁통치이후 서서히 개입을 줄여가며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문제는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조선인들에게는 3상회의가 조선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에도 잘못된 언론보도와 더불어 다른 형식의 식민지배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로 인해 좌우세력모두 신탁통치안이 나왔을 때 거센 반대를 하였다. 이후에 좌우를 대표하는 4개의 당이 신탁통치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얼마가지 않아 합의가 틀어졌다. 보수우익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좌익세력과의 합의하기를 꺼려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했다. 한편, 좌우간 대립은 신탁통치안의 찬반 대립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주요했다.

2.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과 나에게 끼친 영향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으로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숱하게 많은 전쟁의 역사와 위기의 순간 중에 가장 위험했던 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임진왜란 당시에 한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과 기지를 가지고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임금에게 시기와 버림을 받았으며 가족들을 연이어 잃었고, 자신의 군대가 궤멸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군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하여 총 23번의 전투에서 23번의 승리를 거두는 기적적인 일을 해낸 인물이 이순신이었다. 모두에게 조선 수군의 승리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고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순신을 제외한 다른 장수들은 전투에 뛰어들기조차 꺼려했을 만큼 압도적인 열세를 가지고 임했던 명량해전에서 불타는 전투의지와 의연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지휘력 그리고 왜군의 선박보다 높은 조선 수군의 선박 제원을 십분 활용한 공격으로 승리를 가져왔던 사건은, 나로 하여금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초월하여 그 기세와 의연함, 결단력, 책임감과 초인적인 수행능력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안위에게 한 말 중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느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느냐? 달아난다고 살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말이 특히 그 전장속의 급박함과 이순신 장군이 중요한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장수들에게 느낀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위한 외침 등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었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성품과 지도력을 엿볼 수 있었다.

노량해전에서 적의 사기를 키우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조선 수군의 사기를 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장렬히 전사할 때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한 이순신으로부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순신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순신은 억울한 누명을 써 직급에서 파직을 당하고, 옥살이에 고문까지 당하였고 불행한 가족사까지 겹쳤었지만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오랫동안 기억될 역사의 위인으로 남은 점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3. 나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과 그 이유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은 6.25전쟁당시 불리하고 불안했던 전쟁의 양상을 뒤엎었던 작전인 인천상륙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치열하게 진행되는 6.25전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대구를 최후의 방어요새로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투의 상황에서 상대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쟁의 국군과 유엔군에게 유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기위한 중대한 작전이었다.

당시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대구를 함락하려는 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인민군들은 빠르고 강력하게 남동강을 넘어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진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8군의 사령관이었던 월튼 워커의 낙동강 방어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방어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쏟아 전선을 방어해갔다. 낙동강 방어전을 하면서 낙동강과 거리가 있었던 영천과 마산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오갔으며 특히 영천은 뺏고 뺏기는 전투가 이어졌다.

낙동강 전투에 전력을 쏟아부었던 북한군은 전쟁 초반 빠른 서울 함락과 더불어 속전속결로 남하에 남하를 진행했지만 낙동강까지의 보급로가 길어져 버린 약점이 있었다. 이를 재빠르게 눈치챈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9월 인천상륙작전을 시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낙동강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대 반격을 계획하였다. 북한군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양동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9월 15일 대대적으로 진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세간의 평가에서도 언급되듯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군 점령지였던 인천은 미국과 국군, 유엔군으로 구성된 상륙작전부대들에게 상륙 및 점령당하였고 이에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달성하며 북한군의 보급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낙동강에서는 와해된 북한군들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서 전세를 금방 역전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민주주의사회를 살아가며 그 속의 자유와 번영에서 많은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로 써는 우리의 역사속에서 전쟁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꾼 인천상륙작전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